

“특화된 콘텐츠·주민 동참 이끌어야”

올 한해에만 전국 자치단체에서 2492개의 축제가 열린다. 여기에 민간에서 개최하는 크고 작은 축제까지 포함한다면 그 수는 가능하기조차 힘들다.

축제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매년 다양한 축제를 열고 있는 광주시(56개)와 전남도(127개)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타 지역 축제와의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이 요구되지만 사실 축제에서만큼은 메뉴얼화된 성공의 비결이 없다는 게 문제다.

지자체가 추진하는 축제마다 추구하는 주제나 목표, 추진방향 등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예산부분만 보더라도 당장 수익을 거두는 게 우선인지, 100년 후를 보고 투자에 집중할 것인지 등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자치단체 축제의 공통 목표는 있다. 어떻게 하면 지역발전과 연계할 것인지다.

광주·전남 자치단체에서 열리고 있는 축제의 성공비결은 없는지 나경수 전남대 교수와 유경숙 세계축제연구소장, 류정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융합연구실장에게 자문을 구했다. 이들은 우선 콘텐츠를 자치단체의 축제는 지역(도시)브랜드를 구축할 수

지역축제 이대론 안된다 성공 축제 되려면

- 나경수 전남대 교수 “잠재력 경험 바탕 지역 맞는 축제 발굴 브랜드화 해나가야”
- 유경숙 축제연구소장 “무작정 만들면 실패 지역사회 공감대와 주민들 신뢰가 중요”
- 류정아 문화관광광학실장 “축제 정착·수익 창출 수십년 후까지 고려 주민이 즐길 수 있게”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축제의 성공은 곧, 관광객이 얼마나 많이 오고 참여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연계해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민부터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역사가 짧은 축제의 성과에 급급해 하기 보다는 수십년 후의 모습까지 생각하는 장기적 관점의 축제 키워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지역축제만의 독특한 이미지 발굴 ▲지역자원의 연계 ▲지역민 소득창출 ▲절제한 사후 평가를 통한 축제의 내실화 ▲부실축제 통제 ▲예산관리 등 다양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나경수 전남대 교수는 “어느 도시든 엄청난 축제 자원을 가지고 있다. 특히 광주는 의향, 예향, 미향이라는 이미 완성된 도시이미지를 지니고 있고 비엔날레와 김치축제 등 다양한 축제 경험도 있다”면서 “이러한 잠재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광주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를 발굴해 브랜드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나 교수는 그 사례로 “1984년 캐나다의 퀘벡에서 시작한 ‘태양의 서커스’가 작년 한해에만 1조원 이상의 수입과 1억명 이상의 관광객을 끌어모았다”면서 “사양길에 접어든 서커스를 재해석해 쓰레기 매립도시로 알려졌던 퀘벡시를 세계인이 찾고 싶은 축제의 도시로 만들어 놓았다”고 강조했다.

나 교수는 현재 광주에서 열리고 있는 축제와 관련해선 “동구의 7080 총장로 축제가 성공한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10년후면 7080은 힘을 잃을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도시형 축제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경숙 소장은 “축제가 우리 지역 왜 필요한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면서 “무작정 축제부터 만들고 보는 건 실패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유 소장의 지적은 ‘치적쌓기 행정’이 만연한 민선시대 이후 국내 자치단체 축제들이 안고 있는 태생적 한계이기도 하다. 이처럼 일단 축제부터 만들고 보니 콘텐츠가 부족하게 되고, 결국 예산의 대부분을 축제의



다음달 9일 개막하는 '제9회 추억의 7080 총장축제'를 앞두고 25일 광주 동구 금남공원에 시민들이 써놓은 소망 글귀들이 내걸려 눈길을 끌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주제와 동떨어진 유명가수 초청 노래자랑 등에 쏟아붓는 등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있다. 대한민국 대표축제로까지 선정된 강진청자축제만 봐도 야간이면 장사꾼들의 각설이 타령과 가수 노래자랑 등으로 행사장이 소음의 도가니로 빠져드는 게 현실이다.

또 축제가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고 신뢰 형성이 중요하다는 게 유 소장의 의견이다. 유 소장은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본인들이 봐도 재미나 감동이 전혀 없는 축제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이러한 축제는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정아 실장은 축제의 조급함을 경계했다. 한 도시가 축제로 도시이미지를 구축해 브랜드 효과가 발생하고, 그것이 완전히 정착해 수익으로 연결되는 데는 최소 수십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류실장은 “단기적 성과에 급급해 한다면 세계를 대표하는 축제가 될 수 없다”며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전통있는 축제를 만들어 내기 위해선 계획단계부터 자치단체와 주민, 전문가 등의 참여와 협의를 통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 내는 게 성공의 열쇠”라고 말했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변호사개업 및 이전인사

저는 지난해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로 끝으로 정년 퇴직을 떠나 변호사로 재출발 하였습니다. 이번에 부산에서 광주로 이전하여 개업하오니 앞으로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주요경력 및 경력 ○

- 부산 성도고등학교(13회)
- 부산대학교 법학과 졸업(93학번)
-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337)수료
-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 창원지법 거창지청 검사
- 인천지법검찰청 검사 (외사부)
-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공안부)

변호사 권오성 올림

■ 업무개시 : 2012. 9.
 ■ 업무장소 : 광주시 동구 지산동 433-3 (중앙빌딩4층)
 ■ 대표전화 : (062)223-7501 팩스 : (062)223-7502
 ■ 개업소연은 생략합니다.

광주·전남 18개 기관 10월9일부터 국감

국회는 다음달 9일부터 광주시청과 광주시교육청 등 광주·전남지역 18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다음달 11일 오전 10시 광주지법과 광주고법, 광주지방법원에 대해 국정감사를 하고 당일 오후 2시 광주지검과 광주고검 국정감사를 한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16일 오전 10시와 오후 3시 광주교육청과 전남교육청, 전남대를 상대로 각각 감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위원회는 18일 오전 10시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해 감사를 한다.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와 오후 3시 광주시청과 광주지방경찰청을 상대로 감사를 시행한다.

이 외에도 광주과학기술원과 전남대병원에 대한 교과위 감사는 다음달 19일과 23일에 대전 한국과학기술원과 국회에서 각각 실시된다.

또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대한 국토위 감사는 다음달 22일 국회,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대한 기재위 감사는 다음달 19일 전주 한국은행 전북본부, 광주지방기상청·광주지방고용노동청·영산강유역환경청에 대한 환노위의 감사는 9일, 11일, 12일에 각각 국회에서 실시된다.

각 상임위는 2012년도 예산 집행, 주요정책과 사업추진, 산하기관·단체 운영, 기타 현안에 대해 질의할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광주·전남 10월 국정감사 일정

상임위	일시	피감기관	장소
법사위	11일 10시	광주고법·지법, 광주지방법원	광주고법
	14시	광주고검·지검	광주고검
환노위	9일 10시	광주지방기상청 등	국회
	11일 10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	국회
국과위	12일 10시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국회
	16일 10시	광주·전남교육청	광주시교육청
교과위	15시	전남대	전남대
	19일 10시	광주과학기술원 등	한국과학기술원
기재위	23일 10시	전남대병원 등	국회
	18일 10시	광주지방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국토위	19일 10시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등	한국은행본부
	22일 10시	여수광양항만공사	국회
행안위	22일 10시	광주시청	광주시청
	15시	광주지방경찰청	광주지방경찰청

“어등산 공익시설로 개발”

강운태 시장, U대회 시설 공사 '비리에 비'자도 안 나오게 관리

강운태 광주시장은 25일 골프장 선(先)개장을 둘러싸고 특혜 논란까지 빚어졌던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공익시설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과 검토사업, U대회 경기장 발주 등 3개 지역현

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강 시장은 “어등산 관광단지사업은 골프장과 테마파크를 동시에 개발하는 게 원칙이지만, 여건상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가칭 어등산 개발시민위원회를 구성해 ▲시민을 위한 공익시설 ▲광주시의 발전방향과 연계한 개발 ▲시 재정 부담 최소화 등 3가지 원칙

아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개발방식에 대해선 “금호리 조트클럽 개발 업체에게 땅을 사용토록 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시에 기부납토록 하는 방식과 공익시설을 갖춘다는 조건으로 땅을 매각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개발방향과 관련해선 “적잖은 교통과 사회적 비용을 치렀지만 이는 모두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를 만들기 위한 도전 속에서 나온 것”이라며 “이제는 일단락된 만큼 광주 문화산업 전체가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문화콘텐츠산업을 더욱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수영장(600억원)과 다목적 체육관(900억원) 공사를 광주시가 직접 발주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비리에 '비'자도 안 나오게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수익을 내야 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런저런 노력을 할 수 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잠음이 날 수 있다. 해당 부서는 임찰이 끝날 때까지 일체 (업체와)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업체의) 견의사안 등이 있으면 여러 직원이 있는 시청 사무실에서 떼떼하게 제안하도록 하고, 업체를 만나거나 전화만 해도 그 자체를 비리로 보겠다”며 비리차단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빛日만평

- 김중두



추석 기분 영 아니다

대한민국 신용등급 상승!

Moody's: Aa3, Fitch: AA-, S&P: A+

한국정책금융공사 역사상 최저금리 외자조달!

9월 18일, 한국기관 사상 최저금리(1.94%, 5년) 글로벌 본드 발행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저리조달자금 10억불 특별공급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녹색산업 · 신성장동력산업 영위 기업
- 해외지원개발 · 해외프로젝트 · 해외투자 지원 등

■ 자세한 내용은 공사 홈페이지 (www.kofc.or.kr) 또는 기업금융나들목 (www.smefn.or.kr)을 참고바랍니다.



창립 3주년을 맞는 한국정책금융공사는 국민경제발전을 위하여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